

울산시,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

울산시는 친환경 에너지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2009년부터 3개 부문 11개 시책의 에너지이용 합리화 계획을 마련했다.

울산시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에너지 절약, 저탄소 에너지원 다원화, 에너지 저소비형 구조개선 등을 중점 분야로 선정해 합리화 계획을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공공기관은 건물에 고효율 에너지 가자재 사용, 공무원 승용차 홀짝제 운행, 대중교통 이용, 저탄소 녹색성장 시민 참여행사 실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저탄소 에너지원 다원화 부문에서는 태양광 발전시설과 태양열 온수시설 설치, 태양광 주택 보급을 지원하고 에너지 저소비형 구조개선을 위해서는 기업의 에너지절약 협약 체결과 지능형 교통정보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화학저널 2009/02/12>